

<빌라도의 재판②>

요한복음 19장 1-3절 말씀

- 01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
- 02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
자색 옷을 입히고
- 03 앞에 가서 이르되
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

<빌라도의 재판③>

요한복음 19장 4-7절 말씀

- 04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
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
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
- 05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
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
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
- 06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
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
빌라도가 이르되
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
- 07 유대인들이 대답하되
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
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

요한복음 19장 8-12절 말씀

08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

09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

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

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

10 빌라도가 이르되

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?

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?

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

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

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

12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

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

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

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

<빌라도의 재판④>

요한복음 19장 13-16절 말씀

13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

돌을 깬 뜰(히브리 말로 가바다)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

14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

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

보라 너희 왕이로다

15 그들이 소리 지르되

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

빌라도가 이르되

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?

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

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

16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